

5월 12일 설원이 일기

나는 이날 아침 11시에 일어나서 가족과함께 밥을 먹고
1시에 독서실을 가서 열십이 공부를 하고있었다.
4시쯤 친구가 와서 마침 잠도오고해서 학교로 배드맨
을 치러왔다. 아이스크림 내기도 하면서 한시간 반정도
치곤 나까지 ~~너~~ 너무 더워서 집에서 샤워를하고
다시 독서실을가서 공부를하고 10시에 집을가서 티비프로인
'인간의 조건'을 보았다. 거기서 우산지 ~~책~~책인편
음식만 먹게를 하였는데 재미있어보였다.
그날 피곤해서 잠이들었다.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서 카페에 앉아있다가

저녁으로 전에 말하던 가게에 가서 과자를 먹었다.

과자를 세명이라 가서 두 과를 먹고 냉면을 먹고

나와 상동역으로 가서 어제 현주와 싸워서

사이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풀리고 현주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현주가 엄청 많이 웃었다.

거기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서 화해를 하였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초등학생같이 유치하다.

하지만 한 번 싸우고 나면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친구의 소중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보람찬 하루였다. 오늘의 일기 끝



2013.05.12 (일)

30917 김지혜

날씨: 햇빛은 없었지만 공기는 덥아서 끈적끈적함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야자실에 가야지! 라고 자놓았던 전날 계획표는 눈을 뜨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벌써 두시라니... 침대에서 멍하게 기다다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왔다. 오늘은 민정이가 시험에 합격한 기념으로 산기로 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항상 지각하는 버릇 때문에 오늘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급장을 먹으러 갔는데 날씨가 후덥지근해 공기가 너무 답답했다. 맛있게 먹고있는데 누가 옆테이블에서 나를 불렀다. 중학교때 친구들이었다. 너무 반가웠는데 항상 놀자고 할 때 마다 빠졌는데 내가 다른 친구들아랑 놀고 있으니 친구들이 좀 췌진것 같았다. 민정이가 후식까지사줘서 맛있게 먹고 야자실까지 공부했다.

야자실에 가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항상 계획만 거창하게 짜놓고 하나도 못지키는것 같아서 속상했다. 계획에 어긋난 시간들은 무駄되어 썩는것 같다. 민정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맞았는데 나는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반생에게 되었다. 앞으로 잠은 좀 줄여야지!!

(5/12) 일

기침감기

토요일 저녁 소연이 한테 ^{기침감기} ~~들~~아서 일찍 자고 일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났다 우리 아파트
독서실은 아침 9시에 열지만 밥먹고 당가당가 하느라 10시쯤에 독서실 에가서 공부하고
1시에 점심 먹으러 집에 왔다 마침 오늘 엄마 아버지가 지인 결혼식에 가느라 집이 비어있었다
소연이는 엄마가 집에 나가자마자 반강을 듣다가 바로 인터넷 쇼핑물을 귀찮게할 것
마다 나도 오랜만에 TV를 싹켜보고 엄마한테 지금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저녁먹고 독서실에 갔지만 마침 독서실에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놓고 공부 잘 하고 집에 왔다. 오늘 하루 끝

5/12 일요일

30914
김지민

일요일에 아침밥을 먹고 목욕하러 갔다.

그러고 점심먹고 학원에 갔다.

수학 끝나고 영어하는 거. 어제 영어 쌤이 동시강조훈식 때문에

숙업 못한 거 미안하다고 아바크를 시켜줬다. 그러고 끝내서 정인강 야기하다가

스피치러를 먹었다. 너무 배 불러서 운동하고 잠다 하하.

새날 화요일 파이

< 5월 12일 일요일 > — < 30923 서민성 >

오늘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두시간을 몰라갔다

처음에는 평지처럼 편해서 몰아가는데 땀이 많은 나무로 꽃도 보고

꽃나갈도 눈에서 몰라 갔지만 점점 눈과 산수를 힘써서 저서

그저 거친 눈소리만 내면서 몰라갔다 왔다

라이프 북쪽으로 몰라 갔지만 역시 점점 눈폭풍이 눈에서

초반에는 몰라가지 않았지만, 그러곤 장생각을 차는게는 외로워진 걸까.

외로워 스트레스도 받고 바쁘게 힘쓰었지만, 누군가 나에게 그랬다

인생의 첫번째를 너가 사랑하는 것인 그 누구를 너때선 버려 버려

못까지 못이라고 때로는 태동은 매년 내가 부서져서 항해가

힘들지만 앞만 보고 갈라놓을 줄은 알고 있다고 애제해줬다

유.. 항상 힘을주는 주머니에서 노면 나침반을 년일이 알려준다면

그래도 지극히생존이 버리기 많이 힘들다. 하루하루가 재클로

정말 막막해서 주저 앉아서 보고싶을 때를 몰라

내가 원래세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정말 내가 하겠는 믿는

취미 없이 노렸나? 심지어 아직까지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 시련의 인생이 닥쳤을때

의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지 않는 인생을 살았나?

라고 물어볼때면 '네, 나는 부러워할 인생을 살지 않았어'

내가 하겠는 믿을 했고, 또 내가 하수 있을 만큼 했을테라

M² 그리고 얘기 하긴 싶은 인생은 살고 싶다